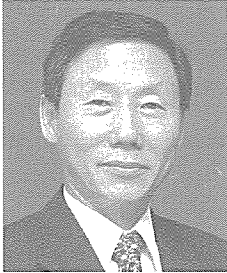


한국경영과학회 과학적 조직운영의 선도역할



安柄勳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과학이란 '일정한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원리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학문'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다. 효과와 효율을 추구하는 경영의 과제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문제해결의 원리를 찾아내고 적용하는 학문분야가 경영과학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열심히 하는 것은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서 적용할 때 조직은 발전한다.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전쟁이나 기업 경영 등이 현대와 같이 복잡하지 않았

으며, 조직의 규모도 크지 않았고 불확실성도 그리 높지 않았다. 비교적 단순한 조직에 안정된 외부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의 운영은 간단한 계산과 직관에 의존하여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에서는 잠수함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어, 이를 파괴하는 작전수행에는 여러 가지 계산과 방법이 동원되어야 했다. 따라서 대잠수함 작전에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었고 이러한 방법의 유용성이 인정되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조직운영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경영과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과학적 경영마인드 확산

한국경영과학회는 외국에서 경영과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과학적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대학에서 연구 및 교육을 올바로 하기 위하여 1976년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은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중동지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공사를 할 때 PERT/CPM 등의 건설공정관리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 공사진척률을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건설공사 대금

을 제때에 받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려웠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과학적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경영과학회 회원들이 대학에 몸담고 경영과학을 가르쳐서 기업과 정부 등에 진출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도 과학적 경영마인드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1976년 설립, 회원 2천2백명

한국경영과학회 현재 회원은 2천2백8명이며, 충청지회, 대구/경북지회, 부산/경남지회, 호남지회, 강원지회 등 5개의 지회를 두고 있다. 또한 경영과학의 세부분야에 관심을 가진 6개의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즉, 경영정보시스템(MIS)연구회, 정보기술연구회, 네트워크연구회, 지리정보시스템(GIS)활용연구회, 데이터마이닝연구회, 차세대물류시스템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술행사로는 봄에 대한산업공학회와 공동으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지방에서 개최하며 주관은 대한산업공학회와 본 학회가 번갈아가며 하고 있다. 가을에는 추계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본 학회 단독으로 개최한다. 학술대회에는 초청강연, 튜토리얼, 논문발표 등이 있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서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안부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 적용할 때 조직은 발전한다.**



전하는 계기가 된다.

본 학회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영과학회(APORS) 창립멤버로서 1988년 8월 24~26일에 제1회 아태지역 경영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는 45개국 1천여 명이 참가한 INFORMS-KORMS Seoul 2000 국제학술대회를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삼성전자 외 많은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COEX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INFORMS-KORMS Seoul 2000 국제학술대회에서는 '21세기 정보와 지식경영'이라는 주제로 고건 서울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Thomas L. Magnanti

MIT 공대 학장의 기조연설, 12편의 튜토리얼과 7백50여편의 일반논문이 발표되어 전 세계의 경영과학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순수 학술논문을 발행하는 「한국경영과학회지」를 1976년부터 연간 4회 발행하여 6백4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국제학술지인 「IJMS」를 1995년부터 5월과 11월에 연간 2회 발행하여 전 세계 50여 나라에 배포하고 있다. 이들 학술지는 학술지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A등급)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다.

1984년부터 연 2회 발행하는 「경영과학지」는 응용논문, 서베이, 연구보

고, 논설, 해설, 전망, 강좌, 산업별 응용사례, 소프트웨어의 소개 및 해설, 기업경영사례 등 경영현실에서 제기되는 경영과제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게재한다. 「경영과학지」에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의 수는 3백88편에 이르고 있다.

이 밖에도 1984년부터 뉴스레터인 한국경영과학회 소식지를 연간 4회 발행하여 왔고,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발행형태를 인쇄물에서 웹진으로 바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발맞추어 가고 있다. 위의 모든 논문 및 뉴스레터는 본 학회의 홈페이지(<http://www.korms.or.kr>)에서 원문검색 서비스가 가능하며, 경영과학 관련 정보를 원하는 학자 및 기업체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영과학은 2차 세계대전시 개발된 운용과학(Operations Research)을 모체로 발전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터넷과 첨단기술로 표현되는 시대에 걸맞은 변신을 필요로 하는 바, 한국경영과학회도 학문세계는 물론 산업과 현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학회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인터넷, 정보통신, 벤처경영, 위험관리, e-비즈니스 등을 한국경영과학회가 주축이 되어 이끌어 가야 할 분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㉟